

발해 도성의 구조와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김진광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투고일자 : 2012. 02. 06 · 심사일자 : 2012. 05. 10 · 게재확정일자 : 2012. 05. 20

국문초록

바둑판식 좌우대칭구조로서 궁성 - 황성 - 외성의 3중성 구조를 지닌 상경성은 발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가장 전범적인 도성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발해 도성제도의 변천과정은 발해 중앙행정체제의 완비로 발해정체제도 보편화과정의 단계적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대상은 상경성으로, 그 구조는 중원의 隋唐長安城과 그 형식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상경천도 당시 수당장안성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었을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상경성 발굴 결과와 선학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해 보면, 상경성은 수당장안성의 외적 구조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투영되어 있는 조영원리도 수용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발해의 국력수준에서 현재와 같은 조영이 불가능함을 주장했던 단계별축조설은 궁성의 중심점인 2호 궁전과 3~5호 궁전 사이에서 조영시기의 차이를 발견할 만한 층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상경성 전체가 동일한 영조적에 의해서 계획되었다는 점, 그리고 3조제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의 측면에서 좀 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국 상경성 조영은 치밀한 계획에 의한 문왕 치세 당시 국가의 운영원리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경성의 조영과 그 원리는 초축 당시 상당한 정도로 중원문화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상경성이 지니는 위상과 구체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더 나아가 이것은 국가의 통치체제가 마련되고 사회전반으로 투영되었으며, 그가 구상하는 天下觀이 발해국 전체로 확대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주제어 : 천도, 상경성, 수당장안성, 도성제도, 도시구조, 조영원리, 천하관

* 이 논문은 201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주관한 문화재청 50주년 국제학술포럼「고려수도 개경과 동아시아의 도성문화」에서 발표했던 발표문인 “발해도성의 형성과 도시구조”를 수정한 것이다.

머리말

동아시아 각국에서 여러 차례 천도가 이루어진 예는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書經』 「尙書」 盤庚篇이다. 상나라는 ‘前八 後五’ 로 모두 13번, 周나라에서는 5회에 걸쳐 도읍을 옮겼으며, 漢·魏·吳·晉·隋 등 여러 왕조에서도 천도를 단행하였다.⁰¹ 한국에서는 고구려에서 졸본-국내-평양, 백제에서 한성-웅진-사비로의 천도가 있었고, 신라에서도 神文王이 達岳伐로 도읍을 옮기고자 했던 적이 있다.⁰² 천도는 국가들마다 그 시기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궤적을 추적한다면 당시 상황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 도성의 조영과 천도가 단순히 건축물의 이전이나 장소의 이동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발해국에서는 건국 당시의 수도였던 舊國⁰³에서 天寶年間 顯州의 소재지였던 西古城으로⁰⁴, 天寶末 上京城으로, 貞元年間 東京 八連城으로 천도하였으며, 다시 문왕 사후 上京으로 그 도읍을 옮겼다.⁰⁵ 기록대로라면 각 도읍지에서 보낸 기간은 수년에서 백수십년에 이르지만,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천도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발해의 도성연구는 천도문제⁰⁶와 도성구조에 대한 논의⁰⁷로 대별된다. 전자는 주로 도성의 입지와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구명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⁰⁸, 도성지와 그 주변에 분포하는 유적들을 분석하여 영역지배의 특징⁰⁹, 도성체제¹⁰를 도출한 논문들이다. 후자는 현재 상경성이 중국 도성처럼 3중성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근거한 논의, 즉 발해 도성이 당의

01 宋基豪, 2004, 「발해의 천도와 그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36, 한국고대사학회, p.114.

02 金琿珂, 2004, 「古代 遷都의 역사적 의미」 『韓國古代史研究』 36, 한국고대사학회, pp.11~12.

03 ‘舊國’이라는 명칭은 『新唐書』 『渤海傳』에서 ‘상경이 舊國에서 곧장 300리 떨어져 있다.’는 기록에 보인다. 지금까지 ‘舊國’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曹廷杰에 의해서 제기된 ‘舊國’이 단순히 敖東城을 가리킨다는 설(曹廷杰, 1887, 『東三省輿地圖說』), 두 번째는 劉忠義에 의해서 제기된 ‘舊國’은 城山子山城과 敖東城을 지칭한다는 견해(劉忠義, 1982, 『東牟山在哪里?』 『學習與探索』 4, 學習與探索雜誌社; 劉忠義·馮慶余, 1984, 『渤海東牟山考』 『松遼學刊』 1, 吉林師範大學學報編輯部; 王承禮·劉振華 主編, 1991, 『渤海的歷史與文化』, 延邊人民出版社, p.209.), 세 번째는 협의의 의미로 ‘舊國’은 王都 및 城邑을 가리키지만 광의로는 옛 王都지역을 가리킨다는 견해(丹化沙, 1982, 『渤海歷史地理研究情況述略』 『黑龍江文物叢刊』 1, 黑龍江文物出版社, p.1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渤海 卷2, 哈爾濱出版社, p.304; 魏存成, 1983, 『關於渤海都城的幾個問題』 『史學集刊』 3, 史學集刊編輯部; 劉曉東, 1985, 『渤海舊國疏議』 『學習與探索』 2, 學習與探索雜誌社; 劉曉東·羅葆森·陶剛, 1987, 『渤海國渤海考』 『北方文物』 1, 北方文物雜誌社, p.42; 王承禮·劉振華 主編, 1991, 『渤海的歷史與文化』, 延邊人民出版社, p.196, pp.214~215.)가 있다. ‘舊都’와 ‘舊國’은 개념범주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구국이 구도에 비해 보다 폭넓은 개념이고, 수당시기 이후 ‘舊國’은 고도, 舊地에 대한 지역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발해국의 전신인 ‘振國’의 고도, 舊地를 넓게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劉曉東·羅葆森·陶剛, 1987, 『渤海國渤海考』 『北方文物』 1, 北方文物雜誌社, p.42.).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오동성, 영송 유적을 포함한 구국지를 가리키는 범칭의 의미로서 ‘舊國’을 사용한다.

04 丹化沙, 1983, 『渤海歷史地理研究情況述略』 『黑龍江文物叢刊』, 1983 - 1; 崔茂藏 편역, 1988, 『渤海的起源和文化』, 藝文出版社, pp.133~134. 송기호도 “문왕대에는 현주 - 상경 - 동경 두 차례나 천도하였으므로 구국에서 현주로의 천도는 문왕이전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인식하였고(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p.97.), 김종복은 “혹수말갈의 토벌, 대문예의 망명, 이를 계기로 발생한 등주공격 등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수도는 협소한 구국이 아니라 현주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김종복, 2003, 「발해 상경성의 구조」 『한국의 도성 : 都城 造營의 傳統』,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p.113.). 또한 朱國忱·魏國忠은 그 시기를 좀 더 좁혀 중경천도를 大門藝와 관련지었는데, 바로 서북의 舊國에서 동남의 중경으로 천도한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고, 천도시기를 대문에 망명사건이 일단락되는 734년으로 단정하였다(朱國忱·魏國忠, 1984, 『渤海史稿』, 黑龍江省文物出版社編輯室, p.59.). 그러나 이 시기에 수도가 옮겨졌다는 점은 726년 혹수부 토벌과 그 과정에서 생긴 왕실내부의 분열, 732년 발생한 발해의 등주공격 등으로 천도를 계획하고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당서』의 기록에 의해 천보년간인 문왕대에 거주한 것으로 이해한다(김진광, 2012,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사, p.167.).

05 『新唐書』 권219, 列傳144, 渤海傳: “...天寶末 欽茂徙上京 直舊國三百里忽汗河之東 ...”; 『新唐書』 권43하, 志33하, 地理7하, 河北道: “...至顯州 天寶中王所都 ...”; 『新唐書』 권219, 列傳144, 渤海傳: “...貞元時 東南徙東京...族弟元義立一歲 猜虐 國人殺之 推宏臨子華與爲王 復還上京.”

06 孫玉良, 1983, 『渤海遷都淺議』 『北方論叢』 3, 北方論叢編輯部; 林相先, 1988, 『渤海的 遷都에 대한 考察』 『清溪史學』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何光岳, 1990, 『渤海大氏의來源和遷都』 『求索』 2기, 湖南省社會科學院; 방학봉, 1992, 「발해는 무엇 때문에 네 차례나 수도를 옮겼는가」 『白山學報』 39, 白山學會; 宋基豪, 1994, 「발해의 초기 도읍지와 천도과정」 『于江權允遠教授定年紀念論叢』, 기념논총간행위원회; 김종복, 2001, 「발해 폐왕·성왕대 정치사회의 동향」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宋基豪, 2004, 「발해의 천도와 그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36, 한국고대사학회; 김기섭·김진광, 2007, 「발해의 상경건설과 천도」 『韓國古代史研究』 45, 한국고대사학회

07 양정석, 2007, 「궁궐유적을 통해 본 발해의 도성」 『발해 5중제와 영역 변천』, 동북아역사재단; 양정석, 2009, 「空間構造를 통해 본 新羅의 五小京과 渤海의 五京」 『역사와 담론』 53, 호서사학회; 양정석, 2010, 『渤海 宮闈構造의 系譜에 대한 檢討』 『역사와 담론』 56, 호서사학회; 김진광, 2010, 「서고성의 궁전배치를 통해 본 발해 도성체의 변화」 『고구려발해연구』 38, 고구려발해학회

08 孫玉良, 1983, 『渤海遷都淺議』 『北方論叢』 3; 林相先, 1988, 『渤海的 遷都에 대한 考察』 『清溪史學』 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清溪史學會, pp.16~17, pp.39~46; 방학봉, 1992, 「발해 상경유적부에 대한 몇가지 문제」 『先史와 古代』 2, 韓國古代學會, pp.149~152; 방학봉, 1992, 「발해는 무엇 때문에 네 차례나 수도를 옮겼는가」 『白山學報』 39, 白山學會, pp.31~46;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p.99; 張高, 1997, 『論渤海遷都上京的原因』 『高句麗渤海研究集成』 渤海 卷2, 哈爾濱出版社, p.588.

09 酒高雅志, 1998, 『渤海의 王都와 領域支配』 『古代文化』 50 - 9, 古代學協會

10 林相先, 2006, 「발해의 都城體制과 그 특징」 『韓國史學報』 24, 韓國史學會

장안성과 중국적 문화전통을 계승하였다는 것으로¹¹, 단순히 외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측면에서도 당나라와의 관련성을 강조한 주장들이다. 중국학계의 논의는 달리 안학궁 남궁 1호 궁전과 상경성 제1호 궁전의 비교검토를 통해, 그 평면구조가 장방형인 점과 익랑으로 동서 회랑이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그 구조가 동일하다는 견해¹²와 발해도성이 오히려 고구려의 안학궁과 기본적인 구성이 비슷하다는 견해도 있다.¹³

발해 도성의 형성과정을 고찰할 때 가장 중요한 대상이 상경성임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 주지하듯이 상경성은 바둑판식 좌우대칭구조로서 궁성·황성·외성의 3중성 구조를 지닌 도성으로, 발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가장 전범적인 도성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경성의 축조시기는 더욱 주목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상경성 조영시기와 관련해서, 현재 확인되는 구조는 문왕, 성·강왕, 대인수 시기에 궁성·황성·외성으로 발전했다는 3단계 발전설,¹⁴ 외조·중조·내조 등 당나라의 삼조제를 받아들이며 현재와 같은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설¹⁵, 또한 발해의 건축형태에 말갈의 가옥구조를 부각시켜 중원의 영향력을 과대포장하므로서 발해 자체의 문화나 고구려적 문화의 영향을 축소시키려는 설¹⁶ 등이 제기되었다.

발해도성의 형성에 대한 이와 같은 학계의 이해는 고고학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발해 건국초기 왕실귀족무덤군으로 확인된 六頂山古墳群의 고분양식이 고구려계의 석실묘를 중심으로 조영되고 있었다는 점, 최근에 발굴된 龍頭山古墳群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금관과 三彩甬 등의 유물이 출토된 점, 또한 길림성 敦化市 육정산고분군에 위치한 문왕의 둘째 딸인 貞惠公主墓碑와 和龍市 龍頭山古墳群에서 발견된 貞孝公主墓碑에서 문왕이 大興寶曆 孝感金輪聖法大王·皇上·聖人 등으로 불리고 있어 당시 그의 정치적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표징들은 바로 발해국의 위상을 엿보기에 충분하고, 발해국의 자체적인 발전과정과 문화적 역량을 가늠하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학들의 연구성과, 고고학적인 발굴성과, 문헌학적 검토를 통해서 상경성을 주 분석대상으로 삼아 발해도성의 구조 및 변천, 구조에 투영된 의미, 그리고 그 축조시기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발해도성의 구조

문헌기록에 근거하면, 발해국은 그 치세기간에 舊國 → 西古城 → 上京城 → 八連城 → 上京城으로 천도하였다.¹⁷ 여기에 건국지인 東牟山 → 敖東城 또는 永勝遺蹟으로의 천도¹⁸를 포함시킨다면 5번의 천도가 이루어진

11 姜華昌, 1988, 『渤海上京龍泉府與唐長安城建築布局的比較』, 『北方文物』, 2, 北方文物雜誌社; 방학봉, 1993, 『比較渤海上京城與唐長安城』, 『延邊大學學報』; 魏存成, 2004, 『渤海都城의 布局發展及其與隋唐長安城의 關係』, 『邊疆考古研究』, 2, 科學出版社, pp.273~297.

12 양정석, 2007, 『공궐유적을 통해 본 발해의 도성』, 『발해5경과 영역변천』, 동북아역사재단, pp.244~245.

13 千田剛道, 1983, 『清岩里寺址と安鶴宮』,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創立30周年記念文化財論叢』, pp.1033~1034.

14 劉曉東·魏存成, 1987, 『渤海上京營築時序與刑制淵源研究』, 『中國考古學會第6次年會文集』, 文物出版社; 『高句麗渤海研究集成』, 渤海 卷2, 哈爾濱出版社, pp.579~581; 秋山日出雄, 1988, 『古代宮室發展段階の初歩的研究—渤海諸宮を手掛りとして—』, 『檀原考古學研究所論集』, 9, 吉川弘文館, pp.625~626; 김종복, 2003, 『발해 상경성의 구조』, 『한국의 도성: 都城 造營의 傳統』,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p.123; 魏存成, 2004, 『渤海都城의 布局發展及其與隋唐長安城의 關係』, 『邊疆考古研究』, 2, 科學出版社, pp.287~289.

15 김종복, 2003, 『발해 상경성의 구조』, 『한국의 도성: 都城 造營의 傳統』,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趙虹光, 2010, 『渤海上京城研究補遺』, 『北方文物』, 4, 北方文物雜誌社; 劉曉東, 2006, 『渤海文化研究』, 黑龍江人民出版社.

16 李强, 2007, 『勿吉과 발해의 “塚上作屋”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 『고구려연구』, 26, 고구려연구회.

17 사료의 기록에 근거하여 발해가 4차례 천도하였다는 견해는 매우 일반적이나(손옥량, 1983, 『渤海遷都淺議』, 『北方論叢』, 88-3; 林相先, 1988, 『渤海의 遷都에 대한 考察』, 『清溪史學』, 5; 방학봉, 1992, 『발해 수도의 변화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발해사연구』, 3, 연변대학출판사; 宋基豪, 1994, 『발해의 초기 도읍지와 천도과정』, 『于江權允遠教授定年紀念論叢』), 이와는 달리 구국에서 상경으로의 직접 천도가 이루어졌다는 견해(김기섭·김진광, 2007, 『발해의 상경건설과 천도』, 『韓國古代史研究』, 45, 한국고대사학회)도 있다.

18 송기호는 종래에는 오동성이 성산자산성과 더불어 발해 초기의 도읍지로 상정되었지만, 근래에 이르러 오동성의 짜임새나 출토유물로 보아 발해시대의 성으로 보기에 어려우며, 동모산과의 방어체제의 개념에서 오동성보다 지리적 잇점이 있는 영승유적이 초기 도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pp.83~84.).

셈이지만, 이를 구국의 범주에 넣는다면 4번이 되는 셈이다. 필자는 발해의 천도과정에 대해, 안사의 난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내면적인 발전과정에서 천도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에서 구국 → 상경으로의 천도를 상정했고, 726년 흑수말갈 토벌을 기점으로 상경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였음을 기술하였다.¹⁹ 발해국에서는 적어도 4 곳에 도읍을 정하였는데 그것은 각 시기별 특징과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1. 오동성²⁰

발해 건국초기의 도성인 敖東城은 吉林省 敦化市 동남부에 위치한다. 현재는 외성 서벽 북단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원래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 외성 북벽에는 주택이 들어섰고, 남벽은 도로가 되었다. 동벽과 내성유적은 남아있지 않다.

성은 장방형의 내·외성으로 이루어진 回字形이다. 성벽은 토축이다. 동·서벽의 길이는 각각 200m, 남·북벽의 길이는 각각 400m, 외성 둘레 길이는 1,200m이다. 성벽 밑면 너비는 8~11m, 잔고는 1.5~2.5m이다. 성벽 밖에서는 해자, 외성 남벽에서는 옹문과 치가 발견되었다. 내성은 토축한 정방형으로, 둘레 길이는 320m이다. 내성은 외성 중서부에 치우쳐 있다. 성벽 바깥쪽 사방에는 해자가 있다.²¹

성터 외성 서벽은 제3층 위에 황색·검은색 흙을 8~18cm 두께로 번갈아 14단으로 판축하였다. 성벽 판축층은 Qa~Qd로 구별되는데, 성벽의 중앙에 위치하며 비교적 순도가 낮은 토양으로 번갈아가며 쌓은 Qa가 성벽 주체부이고, 그 안팎에는 황색과 검은색 흙을 번갈아가며 판축한 Qb와 Qd의 보수부분이 있으며, Qb 안쪽은 황색토와 검은색토로 번갈아 쌓은 보호하는 시설, Qc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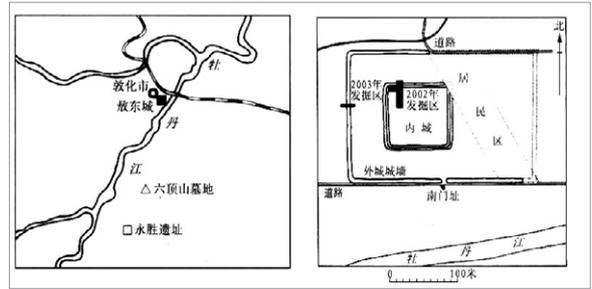


그림 1 (좌)유적 위치도, (우)유적 발굴구역 위치도(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6, 『吉林省敦化市敖東城遺址發掘簡報』, 『考古』9, p.40. 도1·p.41. 도2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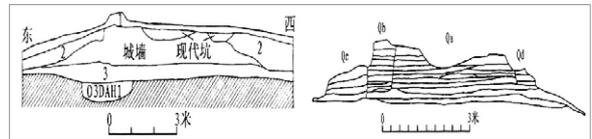


그림 2 (좌)2003년 발굴 외성 서벽 남쪽 단면도(1.회색, 2.회황색, 3.흑색), (우)2003년 발굴 남벽 서성 단면도(Qa: 황토로 된 성벽 주체부, Qb·Qd: 보수구역, Qc: 성벽 보호시설)(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6, 『吉林省敦化市敖東城遺址發掘簡報』, 『考古』9, p.41. 도4·p.45. 도10 인용)

2. 서고성²²

西古城은 내·외성 두 부분으로 남북 중축선에 위치한다. 두 성의 평면은 남북장방형이며, 내성은 그 북반부 중앙에 자리한다. 외성 동벽은 길이 734.2m, 서벽은 길이 725.7m, 북벽은 길이 632m, 남벽은 길이 628.2m, 둘레 길이는 2,720.1m이고, 전체 면적은 약 0.46km²이다. 내성은 동벽 311.1m, 서벽 306.8m, 북벽 187m, 남벽 187.9m, 둘레 길이는 992.8m이다. 외성 남·동·북벽은 비교적 상태가 좋아 일반적으로 그 높이는 1.5~2.5m이며, 가장 높은 곳은 4m에 이른다. 내성 성벽은 기단부만 남아있다.

서고성 내성은 남북과 동서 두 줄의 중심선이 있으며, 내성 안에는 “+”자 형태로 남북 중축선에 제1·2·5호 궁전지, 동서 중축선에 제4·2·3호 궁전이 자리하고 있다. 내성 남문은 전체 성터의 중심점에, 2호 궁전은 1~5호 궁전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橫長方形인 1~3호 궁전지는 판축층과 자갈층을 교대로

19 김진광, 2012,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사, pp.214~216.

20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6, 『吉林省敦化市敖東城遺址發掘簡報』, 『考古』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pp.40~54;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7, 『吉林省敦化市永勝金代遺址一號建築基址』, 『考古』2, p.142. 참조

21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吉林省志·文物志』, 吉林人民出版社, 1991, pp.60~62.

2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7, 『西古城 - 2000~2005年度遼寧省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참조

쌓았다. 2호 궁전지는 기단 아래에 보강시설이 있고 기단 남쪽에는 1호 궁전 북문과 통하는 문이 있다. 3호 궁전지는 2호 궁전지 동쪽, 4호 궁전지는 그 서쪽에 있다. 4호 궁전 주실 내부 및 서북쪽 회랑에서 난방시설이 발견되었다. 2호 궁전의 규모와 비슷하지만 건물의 구조·시설 등에서 두 주실이 하나의 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이 차이를 보인다. 5호 궁전지는 횡장방향으로 정면 11칸, 측면 5칸 구조이다. 중앙부분에는 초석이 남아있지 않아 減柱방식으로 지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내성 격벽 중간에 문지가 있다.

3. 팔련성²³

八連城은 훈춘시 서쪽 6km 琿春市良種場 내에 있다. 팔련성은 내·외 이중성이다. 200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외성 성벽은 남북향으로 약간 긴 장방형으로서, 동벽 743.4m, 서벽 734.4m, 남벽 698.4m, 북벽 709.2m이다. 남북장방형인 내성은 외성 중북부에 있고, 남벽 중간에는 너비 24.3m의 문지가 있다.

내성은 1호 건축지와 2호 건축지, 그리고 중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방형인 1호 건축지는 동서 42.45m, 남북 26.32m이다. 중앙부 잔고는 약 2.2m, 네 모서리의 잔고는 1.2~1.5m이다. 기단 남벽아래는 황토, 그 위는 강자갈층과 황토층, 기단 표면은 황토판축층으로 쌓았다. 그 위에는 12개의 작은 초석들이 있다. 기단 남벽 바닥에서

너비 0.1~0.2m, 두께 0.1~0.15m에 달하는 재띠가 있어, 목재로 벽을 감싼 것으로 생각된다.

1호 건축지에는 정전기단 남동·남서 양쪽에 장방형의 계단이 있고, 건축물 좌우 벽 남쪽에 행랑이 있다. 2호 건축지는 동서 30.59m, 남북 18.54m, 잔존 높이는 0.98m으로, 정전·그 북쪽의 건축유적 및 동서 배전기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심건물 기단은 0.1~0.2m 두께로 강자갈과 황토로 쌓았다. 그 동서 양쪽에도 구조·크기가 서로 같은 계단이 있다.

1·2호 건축지 사이 및 1호 건축지 동서 양쪽에는 남북향의 회랑이 있다. 1호 건축지 정전과 2호 건축지 중심건물 중축선상에는 卍자 형태의 중랑이 있으며, 남북 길이는 38.2m이다.

4. 상경성²⁴

上京城은 지금의 흑룡강성 영안시 서남쪽 약 35km 渤海鎮에 있으며, 궁성, 황성, 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성은 옆으로 긴 장방형이다. 성벽은 대체로 보존상태가 매우 좋으나 남벽은 그 높이가 1m도 되지 않는다. 동벽은 3,358.5m, 서벽은 3,398m, 남벽은 4,586m, 북벽은 4,946m, 외곽성의 둘레 길이는 16,288.5m이다. 상경성 외성은 주작대로를 기준으로 동서 두 구역으로 나뉜다. 외성은 도로에 의해 비둑판처럼 구획되었고, 동서 양쪽에는 각각 41방이 존재한다. 발굴결과, 각 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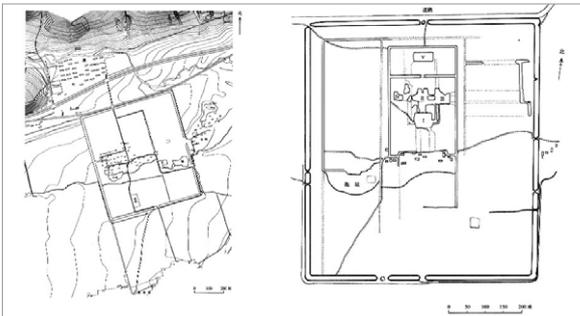


그림 3 (좌)2003년도 서고성 평면구획도, (우)1937년 서고성평면도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7, 『西古城 - 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p.14. 도9·p.6. 도2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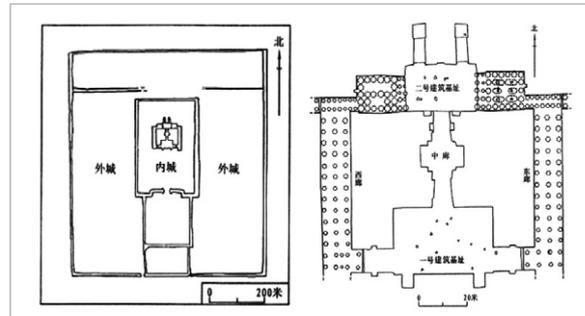


그림 4 (좌)팔련성평면유적도, (우)팔련성 내성 기단부 평면도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09, 『吉林琿春市八連城內城建築基址的發掘』 『考古』6, 도2·도3 인용)

2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09, 『吉林琿春市八連城內城建築基址的發掘』 『考古』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pp.15~22. 참조

2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7, 『六頂山與渤海鎮』,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黑龍江文物考古研究所 編著, 『渤海上京城 - 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 文物出版社 참조

모두 장방형으로 圍牆이 있다. 각 방은 대체로 동서 길이가 465~530m이나, 남북 너비는 큰 것이 350~370m, 작은 것이 235~265m이다. 외성에는 동벽과 서벽에 각각 두 개씩, 남벽과 북벽에는 각 세 개씩 총 10개의 성문이 있다.²⁵ 또한 상경성 안팎에서는 9곳의 사찰이 발견되었다.

황성은 秦漢시기 주로 궁실의 주변에 설치하여 국가의 정무를 처리하던 곳으로 北魏 洛陽의 남북 兩宮制度로 이어졌고, 수당시기에는 北宮에 皇宮을, 南宮에 中央官署를 두는 것으로 제도화되었다. 상경성도 이와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 宮城의 남쪽에 있는 황성²⁶은 가로로 긴 장방형으로, 동벽 447m, 남벽 1,045m, 서벽 454m, 북벽 1,050m, 전체둘레는 2,996m이다. 圍牆은 돌로 쌓았다. 황성은 동구·서구·중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서구와 동구는 그 위치가 대칭을 이루나, 지면 위에서와 편 등 유물이나 지표면 아래에서 건축물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광장으로 궁성 남문과 황성 남문 사이의 통로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宮城은 장방형으로 북쪽에 있다. 돌로 쌓은 궁성벽의 잔벽 높이는 3m정도이나, 4m에 달하는 곳도 있다. 동벽과 서벽은 각각 720m, 남벽과 북벽은 각각 길이 620m, 둘레 길이는 2,680m이다.²⁷ 궁성 동·서·북쪽에 禁苑이 있다. 궁성은 동구·중구·서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중구에는 “五重

殿”이라 불리는 1~5호 궁전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1호와 2호 궁전지의 규모는 매우 커서 조화와 典禮 장소로 생각된다.

도성 구조의 변천

발해국 도성 가운데 상경성은 규모가 가장 크며 구조나 형식도 가장 완벽하다. 따라서 발해국의 도성제와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은 의문이 없다.

舊國의 오동성이 回字形인 것을 제외하면, 서고성·팔련성은 내외 이중성²⁸, 상경성은 삼중성 구조이다. 그래서 서고성 팔련성의 윤곽이 상경성의 윤곽과 동일하다는 점을 통해 상경성의 형식구조를 추구하려는 연구가 있었다.²⁹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언급할 것은 바로 오동성과 나머지 세 성의 구조 차이이다. 『周禮』 「考工記」에는 “... 方九里 勞三門, 九經九緯 左祖右社 前朝後市” “前朝後寢” 등의 기록이 있다. 이러한 배치가 엄격히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원의 역대 도성을 살펴보면 후대로 갈수록 점차 유가적 철학사상인 “居中不偏”·“不正不威” 등에 영향을 받아, “宮城居中”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³⁰ 바로 오동성에 구현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 1997년 이루어진 발굴결과 궁성 동벽에서 11호 문지가 새로이 발견되었다. 이 문의 건축형태는 전기와 후기 두 시기로 분류할 수 있고, 전기 건축물의 형식은 외성 남벽 동문의 규모, 형식, 축조방식과 대체로 유사하다. 11호 문지는 내성의 여타와 도로와도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상경성이 좌우대칭구조라는 점에 근거하면 성 서쪽의 외성 벽에 11호 문지와 대응할 문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牡丹江市文物管理站, 1999, 『渤海國上京龍泉府遺址1997年考古發掘收獲』 『北方文物』4, 北方文物雜誌社, p.44, p.49).

2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7, 『六頂山與渤海鎮』,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p.52.

27 魏存成은 上京城 궁성과 長安城 궁전구역의 길이와 폭 비율이 7:6으로 대략 서로 같은 것은 축성할 때 장안성을 참조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張博泉·魏存成, 1998,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p.403).

28 西古城 내성과 외성 사이에 성벽이 있어 3중성을 구성한다는 견해(주영현, 1971,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pp.16~17), 현재 八連城의 외성은 실제로는 내성이고 그 바깥쪽에 다시 외성이 존재했다는 견해(齋藤兵甚衛, 1943, 『琿春』 『琿春·敦化』, pp.15~18; 駒井和愛, 1977, 『渤海の舊國驪州·中京顯德府について』 『中國都城·渤海研究』, p.180.)가 있다(양정석, 2007, 『궁궐배치로 본 발해의 도성』 『발해5경과 영역 변천』, 동북아역사재단, p.220, p.225).

29 이러한 연구들은 서고성과 팔련성의 윤곽이 동일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평면도상 그 중간에 끼여있는 상경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劉曉東·魏存成, 1987, 『渤海上京城營築時序與刑制淵源研究』 『中國考古學會第6次年會文集』, 文物雜誌社: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 渤海2, 哈爾濱出版社). 그러나 각 도성간의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발해 상경 남쪽에 위치한 행상가마터에서 출토된 벽돌기와는 730년대 전후에 제작되었던 것으로서 상경축조가 중경보다 먼저 조영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점(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1986, 『渤海磚瓦窯址發掘報告』 『北方文物』 2, 北方文物雜誌社, p.38.), 서고성 2호 궁전지와 팔련성에서 출토된 연화문외당미 상경성의 5호 궁전에서 출토된 유물과 서로 유사하지만 시기적으로 늦다는 점을 근거로, 오히려 상경의 건물배치가 중경과 동경에 응용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秋山日出雄, 1988, 『古代宮室發展段階の初歩的研究—渤海諸宮をりとして』 『福原考古學研究所論集』 9, 吉川弘文館, pp.625~626; 田村晃一, 2000, 『渤海瓦當文様に關する若干の考察』 『靑山史學』 19, 靑山學院大學文學部 史學科研究室, pp.10~13; 김진광, 2012,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사, p.167, 주42), p.183).

30 董鑑弘, 1986, 『中國古代城市的規劃布局藝術與規劃思想』 『時代建築』 2, 同濟大學 建築與城市規劃學院, p.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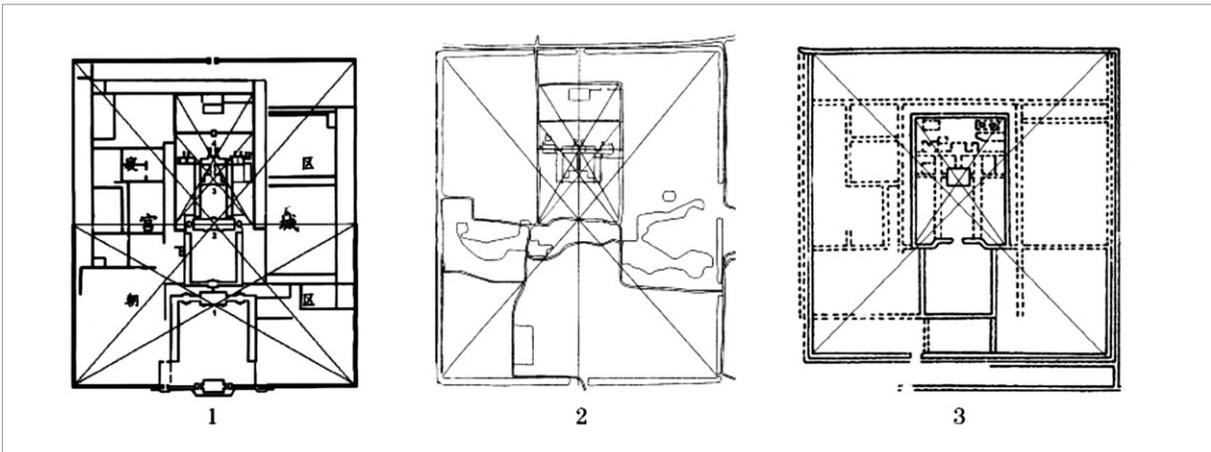


그림 5 1. 상경성 2. 서고성 3. 팔련성(趙虹光, 2009, 『渤海上京城建制研究』, 『北方文物』4, p.21. 도3 인용 ; 김진광, 2010, 『서고성의 궁전배치를 통해 본 발해 도성제의 변화』, 『고구려발해연구』38, 고구려발해학회, p.89.)

장안성 태극궁은 150여m를 넘는 주작대로가 황궁의 정문 및 太極宮과 마주하고, 大明宮에는 180m가 넘는 丹鳳門大街가 含元殿 건축군과 마주한다. 이 도로들은 전체 도성을 좌우 양분하는 중축선으로써 좌우대칭의 도시구조는 궁전·도로, 그리고 건축물들로 尊卑 또는 等級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예를 들면 전자는 天地日月, 春夏秋冬, 天文 등으로, 장안성 남북 13坊은 12달과 윤달, 황성 남쪽 4방은 四季를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다. 명나라가 북경성 남쪽에 天壇, 북쪽에 地壇, 동쪽에 日壇, 서쪽에 月壇을 세웠다거나 전후좌우에 사신을 배치 하였던 것도 바로 천자의 지존을 더욱 부각하려는 것이 었다.³¹ 결과적으로 이러한 체현법은 天人感應 또는 陰陽五行 풍수사상에 의한 영향을 받으면서 더욱 두드러 졌다고 하겠다.

발해 도성은 내성이 외성의 중북부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중축선에 의한 좌우대칭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 상경성이 삼중성으로서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서고성이나 팔련성은 내외 이중성으로 그 밖을 감싸고 있는 외성은 확인되지 않았다.³²

세 도성이 이중성인가 삼중성인가를 논외로 하면, 그 규모와 평면에서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³³ 다만 서고성에서는 외성의 중심축이 내성 남문에 위치해 있고, 팔련성에서는 내성 남문이 좀 더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반면, 상경성에서는 그 중심점에 2호 궁전지가 위치한다. 내성 안에서는 다시 서고성의 1호 궁전과 상경 성 궁성의 3호 궁전이, 그리고 팔련성 1호 건축지가 대응 하며, 내성 격벽 북쪽의 5호 궁전지를 포함하면 서고성의 2호 궁전지와 상경성의 4호 궁전지가 서로 대응한다.

31 董鑑弘, 1986, 『中國古代城市的規劃布局藝術與規劃思想』, 『時代建築』, 2, 同濟大學 建築與城市規劃學院, pp.51~52.

32 齋藤優는 東京龍原府址로 비정되는 瑋春 八連城의 구조에 대해서, 성 남쪽에 사찰유적이 있고 내성이 북중부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동서 700m, 남북 730m의 내성 안에 동서220m, 남북 310m의 궁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다시 鳥山喜-이 제기했던 외성을 내성으로, 내성을 궁성으로 불러 3중성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齋藤優, 1942, 『半拉城』, 瑋春縣公署; 驅井和愛, 1977, 『渤海東京龍原府宮城址考』, 『中國都城 渤海研究』, 雄山閣, p.159; 驅井和愛 著, 寧波 譯, 1992, 『渤海東京龍原府宮城址考』, 『北方文物』4, 北方文物雜誌社, p.106.). 또한 李殿福도 “八連城 남벽 바깥쪽에서 발견된 3개의 절터 위치가 上京城 皇城 바깥 외성 안쪽의 절터위치와 비슷한 점에 근거하여 동경과 상경이 동일한 도시계획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八連城 바깥쪽에 다시 里坊制를 갖추고 외성으로 둘러쌀 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서 이는 문왕말기에 현존 상경성 규모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李殿福, 1991, 『高句麗渤海의考古と歴史』, 學生社, pp.98~99; 김종복, 2003, 『발해 상경성의 구조』, 『한국의 도성: 都城 造營의 傳統』,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p.124.).

33	위치	규모(동서×남북×높이m)
	서고성	630×730×- = 2,720
	상경성	620×720×- = 2,680
	팔련성	740×706×- = 2,892

일반적으로 상경성의 궁성은 1~5호 궁전이 있는 중심부와 좌우 掖城이 포함되나, 본 표에서는 1~5호 궁전이 위치한 中區만을 宮城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도성의 평면구조의 계승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둔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八連城의 외성 규모는 동벽 746m, 서벽 735m, 남북 701m, 북벽 712m로 2,894m로 약간 마름모형태이나, 본 표에서는 편의상 동서길이와 남북너비를 평균하였다.

규모와 비율면에서 서고성과 상경성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팔련성도 1~2호 궁전지가 中자 형태의 중랑으로 연결되고, 그 좌우 배전이 다시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은 상경성 3-4호 궁전의 구조와 유사하다.³⁴

상경성 궁성은 1~5호 궁전이 동일시기에 축조된 것인가에 대해 2000~2005년 발굴에 의하면, 제2호 궁전 북쪽 산수와 제 3호 궁전 동서랑 남단의 트렌치 단면을 관찰한 결과, 지면은 여러 층의 모래흙이 기반보강시설을 위해 다진 돌 위를 덮고 있는 점, 서쪽 탐색갱 단면 모래층 남단이 2호 궁전지 북쪽 산수 아래의 다진 기초 위에 있고 북단이 제3호 궁전지 서쪽 회랑 남단에 돌로 쌓은 기초 위에 있는 점에 근거하여, 2호 궁전과 제3호 궁전의 동서회랑이 동일시기에 축조한 것이며, 2호 궁전지와 3호 궁전지 동서 회랑도 동일시기에 축조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⁵ 또한, 세 궁전, 즉 1호 궁전과 2호 궁전 사이, 2호 궁전과 3호 궁전 사이의 탐색갱을 보면 서로 다른 시기에 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없고³⁶, 1~5호 궁전으로 갈수록 점차 기단이 낮아져 등급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궁전 앞 정원이 북쪽으로 갈수록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건축기단의 칸수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점³⁷, 상경용천부 내성 안의 모든 건축과 외

성내의 사찰유적이 공통적으로 1척=29.34cm의 자를 적용하였다는 점³⁸ 등은 상경성 궁성건축물이 동일시기에 특정한 목적에 따라 축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981~1985년에 이루어진 궁성 2~4호 문지에 대한 발굴에서도 3호 문지와 대칭하고 있는 4호 문지는 구조적인 일치성에 의한 가문이라는 발굴결과를 제시한 점³⁹도, 궁성구역이 동일시기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근거라 하겠다.

한편, 상경성 궁성 1·2·3 궁전을 『周禮』의 三朝制度⁴⁰에 의해서 축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⁴¹ 『주례』에 의하면, 王宮을 內朝, 中朝, 外朝로 구분하는데, 내조는 천자가 휴식하는 곳이고, 중조는 천자가 직접 정사를 보는 곳이며, 외조는 군신들이 정사를 의논하는 곳이다.⁴² 이러한 삼조제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隋唐長安城의 太極宮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太極宮과 大明宮의 조합모델이며, 또 다른 하나는 大明宮모델이다. 첫 번째는 承天門-太極殿-兩儀殿⁴³,과 같이 상경성 궁성 남문-2호 궁전-3호 궁전⁴⁴, 두 번째는 상경성 1호 궁전 - 2호 궁전 - 3·4호 궁전⁴⁵, 세 번째는 大明宮의 含元殿-宣政殿-紫宸殿과 같이 상경성 1호 궁전 - 2호 궁전 - 3호 궁전⁴⁶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34 黑龍江文物考古研究所 編著, 『渤海上京城 - 1998 ~ 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 文物出版社, 도면173 제3·4호 궁전건축군 평면배치 복원도 참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양정식, 2010, 『渤海 宮殿構造의 系譜에 대한 檢討』 『역사와 담론』, 56, 호서사학회, pp.282~287.참고

35 趙虹光, 2010, 『渤海上京城研究補遺』 『北方文物』, 4, 北方文物雜誌社, p.68.

36 趙虹光, 2009, 『渤海上京城建制研究』 『北方文物』, 4, 北方文物雜誌社, p.19. 조홍광은 2010년도에 발표한 또 다른 논문에서 2호와 3호 궁전의 산수에 초축 이외의 보수 흔적이 있는 점과는 달리 1호 궁전 양쪽 회랑건축에 남아있는 초석 등 유적에서 보수 흔적이 없는 점, 1호 궁전 북중부의 계단산수 외연과 2호 궁전 남쪽 회랑 중문의 남쪽 계단간의 거리가 3m에 불과하여 동일시기의 건물로 인식하기에 어려워 다른 시기의 건축물이라는 견해를 제기하였다(趙虹光, 2010, 『渤海上京城研究補遺』 『北方文物』, 4, 北方文物雜誌社, pp.68~69.). 그의 이러한 견해는 2009년에 발표했던 논문에서 1~3호 궁전사이의 발굴결과 분기차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감안해 볼 때, 1호 궁전이 2~3호 궁전에 비해 축조순서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37 齋劉曉東·李陳奇, 2006, 『渤海上京城三朝制建制的探索』 『北方文物』, 1, 北方文物雜誌社, p.44.

38 齋井上和人, 2008, 『발해 상경 용천부 도성 계획에 대한 신고찰』 『동아시아의 도성과 발해』(임석규 역), 동북아역사재단, pp.176~192.

39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1985, 『渤海上京宮城第2·3·4號門址發掘簡報』 『文物』, 11; 『高句麗渤海研究集成』(渤海2), 哈爾濱出版社, pp.541~542.

40 『禮記』에 의하면, 천자와 제후의 궁실에는 5重 또는 3重의 궁문이 있는데, 이를 이른바 外朝, 中朝, 內朝라 한다. 외조는 첫 번째 궁문밖에 설치하는데 그 밖은 광장으로 서 國人들을 모아 국가대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수당시기로 접어들면서 內朝는 단지 일상 정무를 처리하는 곳이고, 中朝는 정기적인 조례를 시행하는 곳이며, 外朝는 대규모 하례식을 올리는 지점으로서 그 기능이 변질되었다(楊寬, 1993, 『中國古代都城制度史研究』, 上海古籍出版社, p.171.).

41 趙虹光, 2009, 『渤海上京城建制研究』 『北方文物』, 4, 北方文物雜誌社, p.18.

42 『周禮』 秋官 小司寇: "... 掌外朝之政 以致萬民而詢焉 一曰詢國危 二曰詢國遷 三曰詢立君."

43 傅熹年, 2001, 『中國古代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pp.360~375.

44 劉曉東, 2006, 『渤海文化研究』, 黑龍江人民出版社, pp.100~114.

45 魏存成, 2004, 『渤海都城的布局發展及其與隋唐長安城的關係』 『邊疆考古研究』, 2, 科學出版社, p.294.

46 趙虹光, 2009, 『渤海上京城宮殿建制研究』 『邊疆考古研究』, 8, 科學出版社, pp.184~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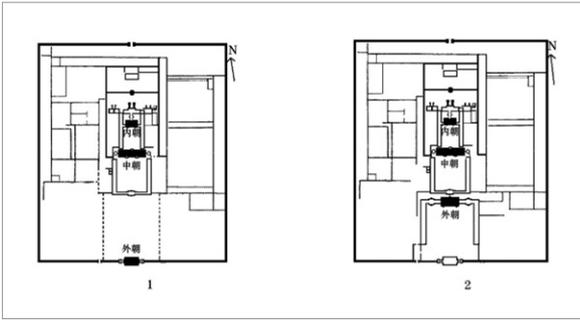


그림 6 상경성 궁성 궁전배치와 삼조 위치도(1. 초기, 2. 후기: 趙虹光, 2010, 『渤海上京城研究補遺』 『北方文物』4, p.70. 도2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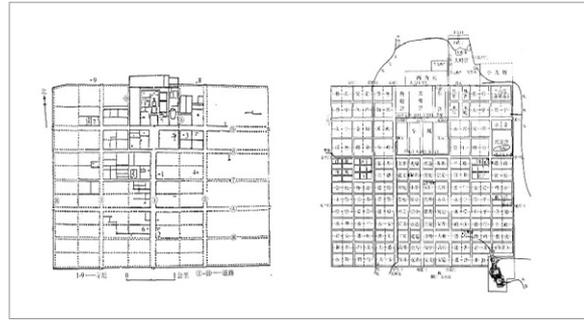


그림 7 (좌)상경성평면도 (우)장안성평면도(魏存成, 2004, 『渤海都城的布局發展及其與隋唐長安城的關係』 『邊疆考古研究』 2, p.278. 도6, p.290. 도10 인용)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주장이든 간에 발해 삼조제 수용의 전제는 궁성 남문에서부터 3·4호 궁전까지의 건축물이 공존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상경성 2호 궁전과 3호 궁전간에는 명확한 시기 차이를 보여주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견해와 상경성 축조에 사용된 기준척이 1척=29.34cm이고 그 중심점에 2호 궁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해가 상경성 천도 당시 적어도 궁성 규모가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삼조제의 수용은 곧 상경성이 궁성 조영단계부터 이미 장안성의 조영원리가 투영되었음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발해도성이 상경용천부 축조는 전체 도시의 건설과 건축형태 및 제도, 건축자재 장식 분위기 등에서 민족전통에 근거하여 중국전통문화의 영향을 수용하였다는 주장도 참고할 만하다.⁴⁷

수당장안성은 초기에 太極宮이 중심이 되었다가 고종연간을 거치면서 大明宮으로, 그리고 현종연간에 興慶宮으로 그 중심이 옮겨졌다. 발해의 도성이 본격적으로 조영된 시기인 740~750년대는 興慶宮이 중심 공간으로 사용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발해의 도성은 구조적으로 분명 隋唐長安城을 본받았을 것이지만, 단순한 외관상의 모방에 국한된 것은 아닌 듯하다. 당과의 외교관계가 성립된 이후 당과의 교류관계에 전념하였고, 당을 방문한 왕자들이 선진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외성의

서남부 또는 서북부에 위치했던 내성이 외성 중북부로 옮겨진 것은 정치적으로는 통일왕조의 구현과 대규모 행사에 따른 수요로, 달리 말하면, 천하관이 투영된 구조로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서고성이나 팔련성과는 달리 상경성 단계에 이르러서 발해는 정치·경제 등 사회전반의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발해도성의 축조시기

발해는 文王大欽茂 시기 몇 차례 도읍을 옮겼고, 5대 成王大華璵부터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는 계속 上京龍泉府를 그 중심으로 삼아 왔다. 도성형태를 비교하면 횡장방형에서 종장방형으로 외형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성의 경우도 정방형에서 종장방형으로 바뀌었고, 그 위치도 중앙에서 중앙 북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띠었다. 중원 도성의 경우를 보면, 北魏洛陽城의 단계로 접어들기 이전까지는 回字型 도성구조를 지니고 있거나, 내성이 외성의 서남쪽 또는 서북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左西朝東의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北魏洛陽城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皇城을 포함한 내성이 중앙 북부로 자리잡기에 이른 것이다. 본래 外城은 國人들이나 포로 및 군대의 安置를 목적에서 형성되었던 것이지만⁴⁸,

47 潘驊宇, 2010, 『淺談唐代渤海國上京龍泉府都城建設文化』 『美術大觀』 3, 美術大觀編輯部, p.73. 조홍광은 발해 상경성의 계획설계·전체 배치·건축교류·궁전설치 등은 지리환경·종원문화의 수용·민족적 전통에 기반한 것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시켰다(趙虹光, 2009, 『渤海上京城建制研究』 『北方文物』 4, 北方文物雜誌社, pp.17~18.).

48 楊寬, 1993, 『中國古代都城制度史研究』, 上海古籍出版社, p.54, pp.59~74.

이 단계에 와서는 외성의 기능이 초기의 그것과는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상경성은 외성·황성·궁성이 자리잡고,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각각 41개 里坊이 존재하며, 내성에는 관청구역인 皇城, 宮城이 있고, 다시 宮城에는 5개의 궁전이 위치한다. 상경성의 모델로 지적되는 隋唐長安城을 살펴보면, 상경성과 그 구조가 대동소이하다. 수당장안성은 582년 조영이 시작된 이후 654년에 이르러서야 외성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 후 633년에 당 고종은 당 고조가 피서하던 大明宮으로 옮겼고, 다시 714년에는 현종의 잠저였던 興慶宮으로 옮기면서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갖추었다.

발해의 도성 상경이 당의 장안성을 본받고 이에 근거하여 도성을 축조했다면, 바로 당의 장안성의 외연만이 아니라 그 내재적인 의미까지도 반영하였을 것이다. 서고성과 팔련성은 상경성 궁성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그중 서고성 특징에 대해서 『西古城』 발굴보고서에서는, 중국고대 도성은 정무를 보는 외조가 남쪽에 위치하고 생활하는 내정이 북쪽에 위치하며 정전이 남쪽에 위치하고 후궁이 북쪽에 위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원 漢 문화의 도성형식을 “모범으로 삼아서” 세운 계획도시로서, 중심선을 명확히 하고 대형건축물을 좌우대칭구조로 세우는 건축이념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⁴⁹ 따라서 이 성터의 도성건축 개념이 중원 한문화 도성 건축개념의 선진적 경험을 응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인식하였다.⁵⁰ 이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서고성의 내성구역은 발해 상경용천부 궁성의 3호에서 5호 궁전터 구역의 건축구조, 건축형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상경성 궁성은 서고성 내성 구조의 복사품이며, 서고성 내성 건축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라고 인식하였다.⁵¹

이와같은 보고서의 견해는 내성의 구조적 유사성에

주목하여 서고성 → 상경성 → 팔련성으로의 발전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그러나 상경성 건축물이 단순한 구조적 유사성에 그치지 않고 수당장안성의 복잡한 조영원리가 투영되었다는 점은 서고성 → 상경성 → 팔련성으로의 발전단계 설정 보다는 오히려 상경성의 조영원리가 서고성이나 팔련성으로 파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상술한 것과 같이 상경성은 장안성과의 구조적 유사성이 있음은 의문이 없다. 본래 도성은 궁성 - 황성 - 외성으로 축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장안성의 경우도 외성 축조에 70여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상경성이 단기간에 축조되었다는 점에 회의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안성이 그렇듯이 상경성도 궁성과 황성, 외성의 구획을 철저하게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안성에서 구현하고 있는 신분의 구분, 4계절과 1년의 구분, 그리고 방리제의 수용 등에서 철저하게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발해에서 천도가 이루어질 당시는 이미 태극궁·대명궁을 거쳐 흥경궁을 중심 궁전으로 사용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해국에서 장안성의 3궁에 대한 구조, 그 구조에 담긴 사상이나 쓰임도 명확하게 이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대명궁 북쪽에 위치한 일명 원벽성으로 불리는 구조물이 상경성에 반영된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⁵² 만약 이들이 단순히 성곽의 의미만을 차용했다면 이는 태극궁만을 모델로 삼았을 것이지만, 현재의 상경성은 오히려 장안성에 투영된 기능상의 장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해국에서 도입했던 도성인 서고성과 팔련성, 그리고 상경성이 이와 같이 유사한 구조로 조영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동일한 사상과 동일한 이념의 반영으로 말미암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동일 국왕에 의해 조영된 세 도성은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동일성을 보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4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7, 『西古城 번역본』, 文物出版社, p.451.

5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7, 『西古城』, 文物出版社, p.340; 번역본, p.490.

5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7, 『西古城』, 文物出版社, p.340; 번역본, p.490.

52 상경성의 북벽 돌출부분인 원벽성은 주변의 지형지세에 따라 쌓은 성벽으로 방어를 위한 조영이지, 계획된 변경이나 내성과 외성의 축조시기가 달랐다고 주장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田村晃一, 2008, 『발해 상경 용천부지의 고고학적 검토』, 『동아시아의 도성과 발해』(임석규 역), 동북아역사재단, p.230.).

그렇다면 상경성이 과연 문왕시기에 현재와 같은 구조로 완비되었던 것일까. 이번의 발굴과정을 거쳐서 서고성이나 상경성이 모두 어떤 청사진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을 가능성의 일부는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록 상경성이 최초 천도당시에 외성까지 축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경성의 배치는 1·2·3·4·5호 궁전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확인하였다고 하겠다. 이 때문에 2호 궁전지가 성전체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문왕이 즉위하고 5년 만에 현주로 천도하였다는 것은 당시 이미 나라의 기반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그가 “文治”를 표방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발해는 외연적인 영토확장이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⁵³ 『新唐書』에서는 “처음에 그 왕이 諸生을 京師의 太學으로 보내어 제도를 익히게 하였다.”라고 하였고, 『玉海』에서도 당과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성립된 다음 해인 개원 2년인 714년에 “학생 6인을 당나라에 파견하여 공부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며, 『책부원귀』에도 “발해 왕자가 시장에 나아가 교역하고 예배할 수 있게 청하자 허락하였다.”는 기록⁵⁴ 등에 근거하면, 발해는 당나라의 선진문물과 사상 및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문왕은 재위 57년간 61회에 걸쳐 당나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⁵⁵ 이것은 발해가 건국이후에 지속적으로 당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도모방과 범위확대라는 측면은 국력의 증강에 따라서 완성되거나 정형화되는 것으로서 무왕시기에

“영토를 확장하니 동북의 오랑캐들이 두려워 복속하였다.”라고 한 것은 外朝를 중시할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貞惠·貞孝公主墓碑에서 “皇上이 조회를 파하고 비통해하시며 침식을 잃고 주악을 멈췄다.”라고 한 것은, 內朝 또는 中朝의 禮制가 마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국가의 통치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었으며, 文王의 國家統治理念과 世界觀이 마련되고 투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고성-상경성-팔련성의 계기적인 발전에만 주목하여 서고성의 도성체제가 상경성 및 팔련성에 투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그 근거에는 발해의 도성제도가 기존의 장안성의 형태를 모방하여 치밀하게 조성한 서고성의 경험이 9세기 중엽에야 완벽하게 장안성의 도성이념이 체현되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주장은 바로 발해국의 역량과 문화적 수준이 당나라의 영향하에서 성장하였다는 영향론의 강조로 이해되나, 최근 龍頭山古墳群에서 발견된 발해의 王冠과 三彩 및 각종 유물은 오히려 발해가 상당히 정교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고, 또한 서고성에서 장안성의 도성이념을 철저히 체현했다고 한다면, 이미 문왕 즉위초년에 중국의 제도 및 도성이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결국 지금까지 확인된 발해의 천도는 상경환도를 제외하고 모두 文王이 재위하던 57년간 이루어졌으며 문왕이 6차례나 책봉을 받는 상황⁵⁶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매우 역동적이었고, 그것은 중원의 당나라에게도 괄목할 만한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⁵⁷

53 김진광, 2007,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p.71.

54 『新唐書』 권219, 열전144, 발해전 : “... 初其王數遣諸生詣京師太學學習古今制度 ...” 이 기록에 대해서 김종복은 문왕 때 유학생을 파견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료에서 발해의 학생파견이 확인되는 사례는 『舊唐書』 『渤海靺鞨傳』의 태화 7년조의 기록이 처음이라고 하였다(김종복, 2006, 『발해의 상경 건설과 천도』에 대한 토론문, 한국고대사학회, 12월 정기발표회). 그러나 발해와 당 사이에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성립된 다음 해인 개원 2년인 714년에 학생 6인을 당나라에 파견하여 공부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玉海』 권153, 『朝貢』 外夷來朝 唐渤海遣子入侍條: “... 開元二年 令使徒大人入學 ...”). 그리고 발해의 왕자가 나아가 교역하고 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청한 일(『冊府元龜』 권971, 『朝貢』 4: “... 靺鞨王子來朝 奏曰 臣請就市交易 入侍禮拜許之.”) 등과 결부시켜 본다면, 이후 발해는 당나라의 선진문물과 사상 및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5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研究』, 一潮編, p.107. 그러나 浜田耕策은 『舊唐書』에 한해에 2~3년 발해사신이 왔다는 기록과 『新唐書』 현종 재위 중에 29회, 대종의 대력년간에 25회의 건당사가 왔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문왕 재위기간의 건당사의 횟수를 54회로 계산하였다(浜田耕策, 1999, 『大欽茂(文王)時代-渤海의 歷史의 性格-』, 『고구려연구-발해건국1300주년(698~1998)』 6, 학연문화사, p.72.).

56 문왕에 대한 책봉에 관한 내용은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研究』, 一潮編, p.121; 김종복, 2005, 『渤海 國號의 성립 배경과 의미』 『韓國史研究』 128; 동북아역사재단, 2007, 『발해의 역사와 문화』, pp.139~143, 참조

57 발해의 천도, 즉 상경천도에 대해서는 755년에 발발한 안사의 난의 여파와 거란에 대한 방비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견해도 있다(孫玉良, 1983, 『渤海國遷都淺議』 『北方論叢』 3; 임상선, 1988, 『渤海의 遷都에 대한 考察』 『清溪史學』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pp.42~43; 동북아역사재단, 2007, 『발해의 역사와 문화』, p.69.).

맺음말

발해 도성제도의 변천과정은 발해 중앙행정체제의 완비로 발해정체제도가 보편적으로 투영되는 과정의 단계적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바둑판식 좌우대칭구조로서 궁성 - 황성 - 외성의 3중성 구조를 지닌 상경성은 발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가장 전범적인 도성의 구조를 지니고 있고, 중원의 隋唐長安城과 그 형식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경천도 당시의 도성구조가 수당장안성과 같은 구조였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상경성 발굴결과, 상경성은 수당장안성의 구조만이 아니라 그 안에 투영되어 있는 조영원리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궁성의 중심점인 2호 궁전과 3~5호 궁전 사이에서 조영시기의 차이를 발견할 만한 층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상경성 전체가 동일한 영조축에 의해서 계획되었다는 점, 그리고 3조제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서 기존의 단계별 축조설은 재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경성의 조영은 文王의 文治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바로 문왕의 치세에 국가의 운영원리가 완비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경성의 조영과 그것에 투영된 조영원리는 그 초축시기에 중원문화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발해에서 상경성이 지니는 위상과 구체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다시 文治를 지향했던 문왕시기의 국가운영과도 어느정도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이것은 국가의 통치체제가 마련되고 사회 전반으로 투영되었으며, 그가 구상하는 天下觀이 발해국 전체로 확대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확보와 발굴보고서에 대한 이해의 한계로 논지 전개과정에서 건강부회한 부분이 없지 않다. 발굴결과에도 불구하고 구국의 소재지로 오동성을 든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서고성-상경성-팔련성의 분석틀도 예외일 수 없다. 향후 도성의 구조이외에 도성지의 비정, 외당 등 유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발굴보고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다면, 본고의 문제점을 좀더 보완하고 신뢰할 만한 논증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거칠고 초략한 원고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서릿발같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심사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참고 문헌

- 『新唐書』
- 『玉海』,
- 『周禮』,
- 『冊府元龜』
- 김진광, 2012,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사
- 宋基豪, 1995,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 주영헌, 1971, 『발해문화』, 사회과학출판사
- 崔茂藏 편역, 1988, 『渤海的 起源과 文化』, 藝文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7, 『西古城-2000~2005年度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文物出版社
-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1991, 『吉林省志·文物志』, 吉林人民出版社
- 單慶麟, 1997, 『高句麗渤海研究集成』5, 哈爾濱出版社
- 傅熹年, 2001, 『中國古代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 楊 寬, 1993, 『中國古代都城制度史研究』, 上海古籍出版社
- 王承禮·劉振華 主編, 1991, 『渤海的歷史與文化』, 延邊人民出版社
- 劉曉東, 2006, 『渤海文化研究』, 黑龍江人民出版社
- 李殿福, 1991, 『高句麗渤海の考古と歴史』, 學生社
- 朱國忱·魏國忠, 1984, 『渤海史稿』, 黑龍江省文物出版社編輯室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97, 『六頂山與渤海鎮』,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9, 『渤海上京城：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 文物出版社
- 齋藤優, 1978, 『半拉城と他の史跡』, 半拉城史刊行會
- 金瑛河, 2004, 「古代 遷都의 역사적 의미」 『韓國古代史研究』 36, 한국고대사학회
- 김기섭·김진광, 2007, 「발해의 상경건설과 천도」 『韓國古代史研究』 45, 한국고대사학회
- 김종복, 2003, 「발해 상경성의 구조」 『한국의 도성：都城 造營의 傳統』,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 김진광, 2007,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0, 「서고성의 궁전배치를 통해 본 발해 도성제의 변화」 『고구려발해연구』38, 고구려발해학회
- 宋基豪, 1994, 「발해의 초기 도읍지와 천도과정」 『于江權允遠教授定年紀念論叢』, 기념논총간행위원회
- _____, 2004, 「발해의 천도와 그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36, 한국고대사학회
- 양정석, 2007, 「궁궐유적을 통해 본 발해의 도성」 『발해 5경제와 영역 변천』,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 「空間構造를 통해 본 新羅의 五小京과 渤海의 五京」 『역사와 담론』 53, 호서사학회
- _____, 2010, 「渤海 宮闕構造의 系譜에 대한 檢討」 『역사와 담론』 56, 호서사학회
- 임상선, 1988, 「渤海의 遷都에 대한 考察」 『淸溪史學』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 _____, 2005, 「중국의 발해 도성 연구와 복원」 『중국의 한국고대문화연구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林相先, 2006, 「발해의 都城體制와 그 특징」 『韓國史學報』 24, 韓國史學會
- 姜華昌, 1988, 「渤海上京龍泉府與唐長安城建築布局的比較」 『北方文物』 2, 北方文物雜誌社
-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吉林敦化敖東城及永勝遺址考古發掘的主要收穫」 『邊疆考古研究』 2, 科學出版社
-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6, 「吉林敦化市敖東城遺址發掘簡報」 『考古』 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7, 「吉林敦化市永勝金代遺址1號建築基址」 『考古』 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09, 「吉林琿春市八連城內城建築基址的發掘」 『考古』 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 單慶麟, 1960, 「渤海舊京城址調查」 『文物』 6, 文物出版社
- 丹化沙, 1983, 「渤海歷史地理研究情況述略」 『黑龍江文物叢刊』 1, 黑龍江文物出版社
- 董鑑弘, 1986, 「中國古代城市的規劃布局藝術與規劃思想」 『時代建築』 2, 同濟大學 建築與城市規劃學院
- 潘馳宇, 2010, 「淺談唐代渤海國上京龍泉府都城建設文化」 『美術大觀』 3, 美術大觀編輯部
- 방학봉, 1992, 「발해는 무엇 때문에 네 차례나 수도를 옮겼는가」 『白山學報』 39, 白山學會
- _____, 1992, 「발해 상경용천부에 대한 몇가지 문제」 『先史와 古代』 2, 韓國古代學會
- _____, 1992, 「발해 수도의 변화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발해사연구』 3, 연변대학출판사
- _____, 1993, 「比較渤海上京城與唐長安城」 『延邊大學學報』, 延邊大學出版社
- 孫玉良, 1983, 「渤海遷都淺議」 『北方論叢』 3, 北方論叢編輯部
- 魏存成, 1983, 「關於渤海都城的幾個問題」 『史學集刊』 3, 史學集刊編輯部
- _____, 2004, 「渤海都城的布局發展及其與隋唐長安城的關係」 『邊疆考古研究』 2, 科學出版社
- 劉忠義, 1982, 「東牟山在哪里」 『學習與探索』 4, 學習與探索雜誌社
- 劉忠義·馮慶余, 1984, 「渤海東牟山考」 『松遼學刊』 1, 吉林師範大學學報編輯部
- 劉曉東, 1985, 「渤海舊國職義」 『學習與探索』 2, 學習與探索雜誌社
- 劉曉東·羅磚森·陶剛, 1987, 「渤海國渤海州考」 『北方文物』 1, 北方文物雜誌社
- 劉曉東·魏存成, 1987, 「渤海上京營築時序與刑制淵源研究」 『中國考古學會第6次年會文集』, 文物出版社
- 劉曉東·李陳奇, 2006, 「渤海上京城三朝制建制的探索」 『北方文物』 1, 北方文物雜誌社
- 李 强, 1997, 「渤海舊都即敖東城置疑—兼對敖東城周長的考證」 『高句麗渤海研究集成』 5, 哈爾濱出版社
- _____, 2007, 「勿吉과 발해의 “塚上作屋”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 『고구려연구』 26, 고구려연구회
- 張 高, 1997, 「論渤海遷都上京的原因」 『高句麗渤海研究集成』 渤海 卷2, 哈爾濱出版社
- 張博泉·魏存誠— 1998,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 趙虹光, 2009, 「渤海上京城建制研究」 『北方文物』 4, 北方文物雜誌社
- _____, 2009, 「渤海上京城宮殿建制研究」 『邊疆考古研究』 8, 科學出版社
- _____, 2010, 「渤海上京城研究補遺」 『北方文物』 4, 北方文物雜誌社
- 何光岳, 1990, 「渤海大氏的來源和遷都」 『求索』 2기, 湖南省社會科學院
-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1985, 「渤海上京宮城第2·3·4號門址發掘簡報」 『文物』 11, 文物出版社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牡丹江市文物管理站, 1999, 「渤海國上京龍泉府遺址1997年考古發掘收穫」 『北方文物』 4, 北方文物雜誌社
- 駒井和愛, 1977, 「渤海の舊國顯州·中京顯德府について」 『中國都城·渤海研究』, 雄山閣

- 驅井和愛, 1977, 「渤海東京龍原府宮城址考」『中國都城 渤海研究』, 雄山閣
- 驅井和愛 著, 寧波 譯, 1992, 「渤海東京龍原府宮城址考」『北方文物』4, 北方文物雜誌社
- 浜田耕策, 1999, 「大欽茂(文王)時代-渤海の歴史的 성격-」, 『고구려연구-발해건국1300주년(698~1998)』6, 학연문화사.
- 小嶋芳孝, 1997, 「中國吉林省和龍縣西古城周邊の航空寫眞」『고대학연구』제138호, 고대학연구회.
- 齋藤兵甚衛, 1943, 「琿春」『琿春·敦化』, pp.15~18.
- 田村晃一, 2000, 「渤海瓦當文様に關する若干の考察」『青山史學』19, 青山學院大學文學部 史學科研究室
- _____, 2008, 「발해 상경 용천부지의 고고학적 검토」『동아시아의 도성과 발해』(임석규 역), 동북아역사재단
- 井上和人, 2008, 「발해 상경 용천부 도성 계획에 대한 신고찰」『동아시아의 도성과 발해』(임석규 역), 동북아역사재단
- 酒寄雅志, 1998, 「渤海の王都と領域支配」『古代文化』50-9, 古代學協會
- 千田剛道, 1983, 「清岩里寺址と安鶴宮」『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創立30周年記念文化財論叢』
- 秋山日出雄, 1988, 「古代宮室發展段階の初歩的研究-渤海諸宮を手掛りとして-」『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9, 吉川弘文館

An Investigation into the Structure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Capital of Balhae

Kim, Jin Kwang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Received : 2012. 02. 06 · Revised : 2012. 05. 10 · Accepted : 2012. 05. 20

ABSTRACT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Balhae's capital system(都城制度) is a step-by-step marker of the completion of the state's governing system(支配體制). The most important subject in investigating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apital of Balhae is Shanggyeongsheng(上京城). That's because Shanggyeongsheng(上京城) with a threefold-castle structure(三重城) of royal palace(宮城)-internal castle(內城)-external castle(外城) in the side-to-side checkerboard type symmetrical structure has the most paradigmatic castle structure not only in Balhae but also in East Asia. Despite the fact that such structure of Shanggyeongsheng(上京城) has a lot of similarities in the type with Sudangchangansheng(上京城) in Chungwon, scholars were skeptical that it had the same structure with Sudangchangansheng(上京城) at the time when transferring the capital. If we review the result of excavation of Shanggyeongsheng(上京城) and the findings of the senior scholars, it can be understood that Shanggyeongsheng(上京城) has not only the structure of Sudangchangansheng(上京城) but also accepted the principle of construction projected in i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room for reconsideration on the theory of step-by-step construction(段階別築造論) which was claimed based on the point that the construction like today's construction was impossible with the level of national power at that time in that the layers whose difference in construction time between the place No. 2, the central point of the royal palace, and the palaces No. 3~5 could be found were not identified, in that the whole Shanggyeongsheng(上京城) was planned by the same standard scale and finally in that there is a good possibility of accepting Samjoje(三朝制).

The Shanggyeongsheng(上京城) is the result of the construction conducted by careful planning from the beginning, and with its close relation with the King Mun's(文王) policy of civilian government(文治), it shows that the governing system of the state was completed during the reign of King Mun. Therefore, the construction of the capital and the principle of construction(造營原理) projected in it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Chungwon culture(中原文化) was being understood to a considerable level, and this means that the view of the world(天下觀) that he wanted to implement expanded throughout the whole Balhae.

Key Words Transferring the Capital(遷都), Shanggyeongsheng(上京城), Sudangchangansheng(隋唐長安城), Balhae's Capital System(都城制度), Castle Structure(都市構造), The Theory of Step-by-Step Construction(段階別築造論), The Principle of Construction(造營原理), The View of the World(天下觀)